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418호 (2022-3)
발행일 2022.2.7.
ISSN 2092-7117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T 044)287-8000 F 044)287-8052

코로나19 발생 전후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인식의 변화¹⁾

여유진

복지국가연구단 선임연구위원

- 2016년 이후, 특히 코로나19 발생 전후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인식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첫째, 주관적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는 코로나19 발생 전에 비해 하락했으며, 우울감은 상승했음. 특히 40~50대 남성, 20~30대 여성, 소득 감소가 컸던 자영업자와 중하층의 삶의 만족도와 우울감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악화됨. 둘째, 국가에 대한 자부심, 사회적 신뢰도, 전반적 통합 인식 등의 지표는 2019년에 비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셋째, 전반적인 사회통합도가 상승한 것과 대조적으로 개인 차원의 대인 신뢰와 사회자본은 코로나19 발생 전에 비해 대부분 더 낮아짐.
- 체계적인 방역 거버넌스와 높은 시민의식에 따라 외국에 비해 코로나19 위기에 잘 대처해 왔다는 자부심이 사회통합 인식의 상승으로 나타난 데 비해, 개별화된 영향으로 인해 행복과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고 우울감은 높아진 것으로 추정됨.
-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집단에 대한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영향의 장기화를 차단하고 불확실한 세상에 대응하여 사회응집력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01. 팬데믹 시기의 삶의 질과 사회통합

- ◆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과 불안, 공포, 혼동, 분열, 갈등의 양상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음.
 - 만 2년을 넘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은 인구와 물자의 이동, 세계 경제, 정치, 문화, 교육, 가구 소득, 노동시장, 소비 패턴 등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 급격하고 지대한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삶의 질, 행복도, 정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1) 이 글은 여유진 외(2021),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 방안: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의 일부를 발췌·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분석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 또한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과 시민사회의 상호작용이 확대되면서 국가에 대한 신뢰도와 사회통합 인식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이에 이 글에서는 2016년 이후, 특히 코로나19 발생 전후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인식의 변화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함.²⁾

- 특히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과 발생 후인 2021년의 연령대별, 경제활동 상태별, 소득계층별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인식 변화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코로나19의 비비례적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추정해 보고자 함.
-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2016~2019년과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 중 공통 문항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음.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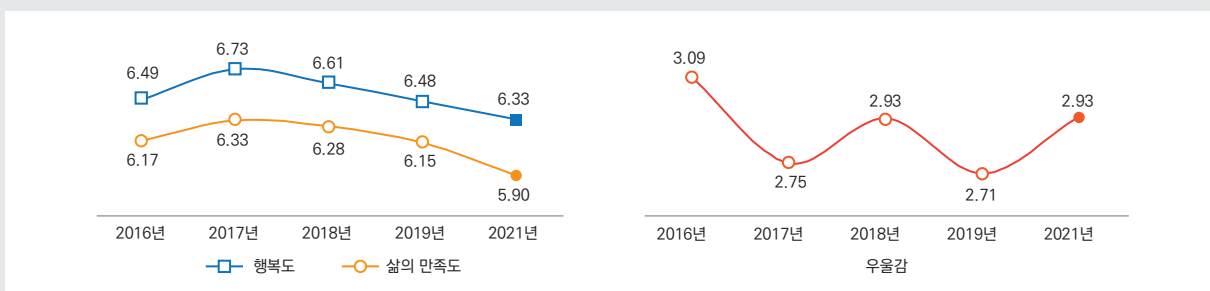
02.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삶의 만족도와 우울감

◆ 주관적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는 코로나19 발생 전에 비해 하락했으며, 반대로 우울감은 상승함.

- 주관적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는 2017년에 큰 폭의 상승을 보인 후 코로나19 전까지 하락 추세였음.
 - 2021년에 주관적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는 2019년에 비해 각각 0.14점, 0.26점⁴⁾ 낮아진 6.33점과 5.90점을 기록함(그림 1).
 - 우울감은 2016년 이후에도 상당한 등락 양상을 보였으며, 2021년에는 2.93점으로 2019년에 비해 0.22점 상승함.

[그림 1] 행복도, 삶의 만족도(좌)와 우울감(우)의 변화 추이

(단위: 점)



주: 행복도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0)~매우 행복했다(10) 11점 척도로 측정됨. 삶의 만족도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매우 만족한다(10) 11점 척도로 측정됨. 우울감은 전혀 우울하지 않다(0)~매우 우울했다(10) 11점 척도로 측정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사회통합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사회통합실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실태조사

2) 분석에 앞서 연구 두 가지 연구의 한계를 적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분석의 결과는 시간적인 선후 관계를 나타낼 뿐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점이다. 즉, 2021년의 변화가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이전 추세의 연장선상에서의 변화는 더욱 그러하다. 다음으로, 조사의 시점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 본 조사는 4차 대우행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전에 실시되었으며, 이후 거리 두기 단계 상황에 따른 국민의 피로감과 자영업자의 손실 증가, 백신 패스 논란 등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3) '사회통합실태조사'는 매년 전국 19세 이상~75세 이하 남녀 4,000여 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 시점은 6~9월경이다. 이 조사는 매년 주제를 달리하며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관련 공통 문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 중 본 분석에서는 조사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는 2016년 이후의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기존의 대면조사에서 웹조사로 조사 방식이 변경되었고 조사 대상자 연령도 제한되었기 때문에 2020년 자료는 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4) 소수점 셋째 자리 이상의 수치를 소수점 두 자리로 반올림하여 계산한 결과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하 다른 수치들도 마찬가지다.

<표 1> 2019년과 2021년의 행복도, 삶의 만족도와 우울감 변화¹⁾

(단위: 점)

구분		행복도			삶의 만족도			우울감		
		2019	2021	* ²⁾	2019	2021	* ²⁾	2019	2021	* ²⁾
전체		6.48	6.33	-	6.15	5.90	***	2.71	2.93	**
연령대	20~30대	6.84	6.55	*	6.34	6.06	*	2.44	2.67	-
	40~50대	6.41	6.28	-	6.13	5.88	*	2.71	3.10	***
	60~70대	5.94	6.10	-	5.85	5.67	-	3.19	3.04	-
경제활동	상용직	6.61	6.61	-	6.29	6.15	-	2.45	2.64	-
	임시·일용직	6.00	5.97	-	5.68	5.50	-	3.07	3.26	-
	자영자	6.49	6.07	***	6.25	5.66	***	2.58	3.07	***
	실업자	5.69	5.73	-	5.24	5.28	-	3.29	3.33	-
	비경활	6.57	6.46	-	6.16	6.04	-	2.95	3.00	-
소득 5분위	1분위	5.83	5.72	-	5.48	5.34	-	3.36	3.50	-
	2분위	6.37	6.12	-	5.98	5.73	-	2.80	3.25	*
	3분위	6.62	6.51	-	6.23	6.00	-	2.61	2.84	-
	4분위	6.71	6.54	-	6.46	6.16	-	2.38	2.59	-
	5분위	6.93	6.83	-	6.68	6.28	*	2.31	2.45	-
주관적 계층	하층	5.24	5.30	-	4.93	4.83	-	3.90	3.78	-
	중하층	6.26	6.16	-	5.99	5.69	***	2.68	2.95	-
	중간층	6.87	6.68	-	6.48	6.29	-	2.51	2.73	-
	중상층(상층)	7.43	7.34	-	7.26	6.87	-	1.84	2.32	-

주: 1) 행복도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0)~매우 행복했다(10), 삶의 만족도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매우 만족한다(10), 우울감은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0)~매우 우울했다(10)의 11점 척도로 측정됨.

2) 별표 표시(*)는 해당 변수의 각 범주별 연도 간 점수 차이가 유의도 0.05(*), 0.01(**),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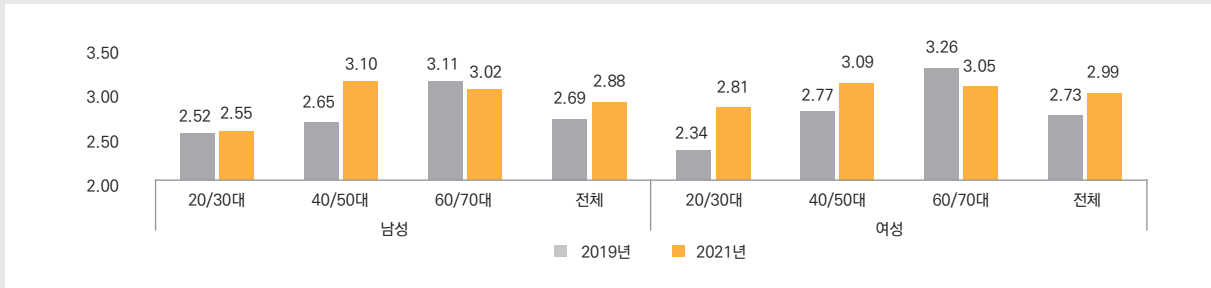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 2021년 주관적 행복, 삶의 만족도 하락과 우울감 상승에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을 간접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인구 특성별, 소득계층별로 분석한 <표 1>의 결과에 의하면,

- 연령대별로는 20~30대의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가 2019년에 비해 각각 0.29점 낮아져 큰 폭의 하락을 보인 데 비해, 60~70대의 주관적 행복도는 2019년에 비해 오히려 0.16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40~50대는 2019년에 비해 우울감이 0.38점 상승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큰 폭의 상승을 보임.

[그림 2] 2019년과 2021년의 성별·연령별 우울감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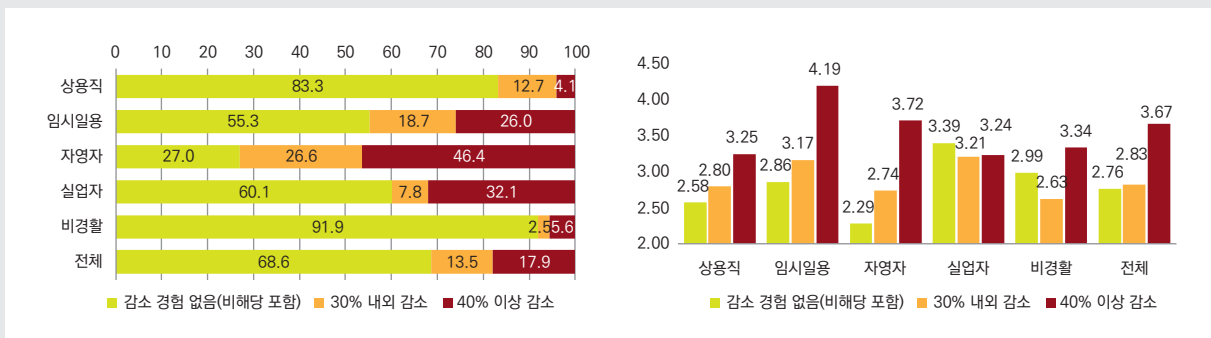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 2021년 남녀 간 우울감이 상승한 연령대에 큰 차이가 있음. 즉, 남성은 40~50대 중장년층의 우울감(0.45↑)이, 여성은 20~30대 청년의 우울감(0.47↑)이 두드러지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2).
-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2019년에 비해 2021년에 자영업자의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가 가장 크게 하락하고 우울감이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실제로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 경험은 다른 경제활동 집단에 비해 훨씬 커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의 26.6%가 10~30%대, 46.4%가 40% 이상의 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3).
 - 소득이 40% 이상 감소한 임시·일용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우울 점수는 각각 4.19점, 3.72점으로 소득 감소가 없었거나 30%대 이하로 감소한 사람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그림 3).⁵⁾

[그림 3] 경제활동 상태별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 경험(좌)과 우울감(우)

(단위: %, 점)



주: '근로소득 감소 경험'은 코로나19 발생 이후(2020년 2월 이후) 근로소득(임금, 사업소득) 감소 경험 유무 문항과, 감소하였다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감소하였는지에 대한 질문 문항을 재범주화하여 분석한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5) 여기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소득 감소 유무별·경제활동 상태별 삶의 만족도 점수도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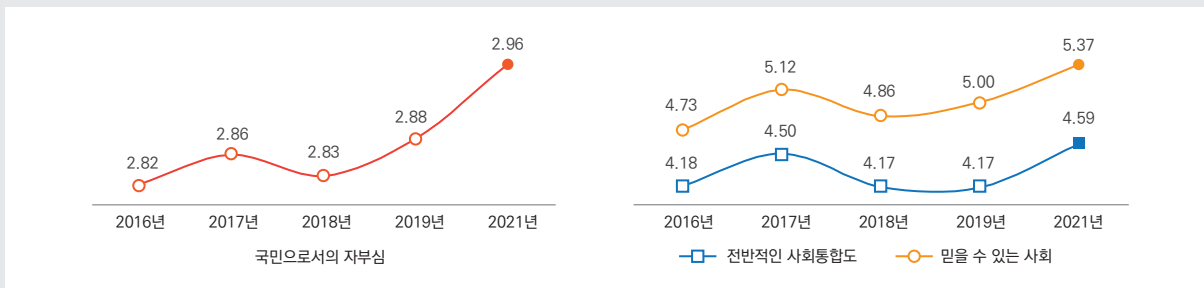
03.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사회통합 인식

◆ 주관적 행복과 삶의 만족도가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사회통합 인식은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함.

-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82점에서 2.88점 사이로 2.9를 넘지 않는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1년에는 2.96점으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그림 4).
- 전반적인 사회통합 수준과 사회적 신뢰도 또한 이 기간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인 사회통합도에 대한 평가는 2016년, 2018년, 2019년에 각각 4.18점, 4.17점, 4.17점으로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2017년에는 4.50점, 2021년에는 4.59점으로 두드러지게 높은 점수를 기록함.
 -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인 사회통합도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며, 2021년 5.37점으로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냄.

[그림 4]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좌)과 전반적인 사회통합도 및 신뢰도(우)의 변화 추이

(단위: 점)



주: 1)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은 매우 자랑스럽다(1)~전혀 자랑스럽지 않다(4) 4점 척도를 역코딩하여 활용함. 전반적인 사회통합도는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0)~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10) 11점 척도로 측정됨. 전반적인 사회신뢰도는 전혀 믿을 수 없다(0)~매우 믿을 수 있다(10) 11점 척도로 측정됨.
2) 세 변수 모두 2019년과 2021년 간의 점수 차이는 유의도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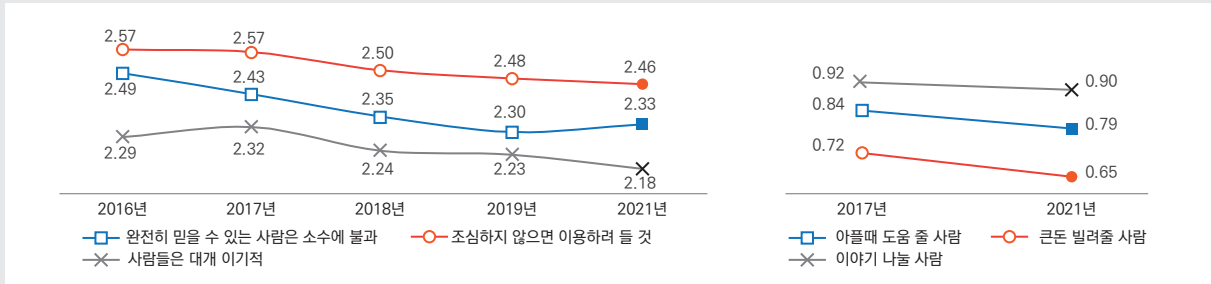
◆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전과 비교할 때 전체 사회 수준에서의 신뢰도는 눈에 띄게 상승한 반면, 개인 수준에서의 대인 신뢰도는 유의한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추세적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며’,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고,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이라는 생각에 동의-점수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5).
 - 다만,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라는 데 대한 동의도는 2019년에 비해 2022년에 약간 떨어졌으나(0.03↓)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점수 차이임.
- 즉, 전반적인 사회적 신뢰 상승이 미시적 차원의 대인 신뢰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건'은 재난이 닦쳤을 때 국가적 혹은 지역적 차원에서 '국가와 시민이 함께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경험과 신뢰감을 제공해 주었지만, 그것은 타인과의 직접적 상호 작용에서 상대를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과는 다르다는 것임.

[그림 5] 대인 신뢰도(좌)와 사회자본(우)의 변화 추이

(단위: 점)



- 주: 1)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이다'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로 응답한 값을 활용함.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 신뢰도가 높음을 의미함.
 2) '감기가 심하게 걸려 식사 준비나 장보기와 같은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큰돈을 갑자기 빌릴 일이 생길 경우',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경우'에 대해 없음을 '0', 있음을 '1'로 코딩하여 분석함.
 3) 대인 신뢰도의 세 변수 모두 2019년과 2021년 간의 점수 차이는 유의도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사회자본의 세 변수 모두 2017년과 2021년 간의 점수 차이는 유의도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사회통합 실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표 2> 2017년과 2021년의 사회자본 변화¹⁾

(단위: 점, %)

구분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			아플 때 도와줄 사람			갑자기 큰돈을 빌려줄 사람			우울할 때 이야기 나눌 사람			
	2017	2021	* ²⁾	2017	2021	* ²⁾	2017	2021	* ²⁾	2017	2021	* ²⁾	
전체	5.94	5.67	***	83.64	78.54	***	71.51	64.76	*	91.54	89.50	*	
연령대	20~30대	6.30	5.91	***	87.70	81.35	***	77.02	68.71	***	95.93	94.17	-
	40~50대	5.83	5.63	**	82.67	78.78	-	72.23	66.54	-	91.28	89.53	-
	60~70대	5.50	5.35	-	77.74	73.76	-	58.92	55.43	-	83.38	82.23	-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6.26	5.89	***	87.82	80.59	***	79.46	67.29	***	96.41	91.80	***
	임시·일용직	5.37	5.29	-	77.71	73.66	-	59.80	59.93	-	86.57	86.21	-
	자영자	5.82	5.68	-	83.50	81.64	-	73.18	68.28	-	90.52	89.69	-
	실업자	5.30	4.95	-	71.88	77.11	-	55.64	56.80	-	83.16	83.28	-
	비경활	5.98	5.65	***	82.90	75.28	***	68.30	61.77	*	90.02	88.80	-
소득 5분위	1분위	5.20	5.08	-	72.89	74.05	-	53.56	52.79	-	79.58	80.23	-
	2분위	5.91	5.53	***	82.84	76.73	*	69.15	65.95	-	91.60	90.30	-
	3분위	6.06	5.75	***	85.77	81.59	-	73.91	67.02	*	94.59	91.04	-
	4분위	6.20	5.89	***	88.15	78.79	***	79.41	66.53	***	96.36	93.80	-
	5분위	6.47	6.12	***	89.76	82.09	**	83.71	72.63	***	96.73	92.40	*
주관적 계층	하층	4.66	4.72	-	66.42	67.57	-	51.31	44.01	-	75.22	77.44	-
	중하층	5.76	5.49	***	83.49	78.84	*	68.23	63.21	*	90.75	90.20	-
	중간층	6.39	6.00	***	88.43	81.11	***	78.65	71.83	***	96.59	92.60	***
	중상층(상층)	6.86	6.62	-	90.52	83.36	-	87.14	70.70	***	98.28	89.91	**

주: 1) '귀하는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에 대해 전혀 받고 있지 않음(0)~매우 많이 받고 있음(10)으로 응답한 값을 활용함. '감기가 심하게 걸려 식사 준비나 장보기와 같은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큰돈을 갑자기 빌릴 일이 생길 경우',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경우'에 대해 없음을 '0', 있음을 '1'로 코딩하여 분석함.
 2) 별표 표시(*)는 해당 변수의 각 범주별 연도 간 점수 차이가 유의도 0.05(*), 0.01(**),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 **사회자본 역시 2017년에 비해 2021년에 전반적으로 더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 2021년에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5.67점)는 물론이고 '아플 때 도움을 줄 사람'(78.5%), '갑자기 큰돈을 빌려줄 사람'(64.8%), '우울할 때 이야기를 나눌 사람'(89.5%)이 있는 사람의 비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표 2).
 - 특히 20~30대 청장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소득 2~5분위, 중하층과 중간층에서 유의미한 사회적 지지의 하락을 보임.
- 사회적 지지와 사회자본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빛을 발하지만, 현실에서 재난적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우려되는 점임.

04. 팬데믹 시기, 삶의 만족도와 사회응집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

◆ **팬데믹과 같은 사회적 재난 시기에는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거버넌스, 사람들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 사회적 자본과 응집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됨.**

-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전반적인 통합 인식, 사회적 신뢰도가 크게 상승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임.
 - 특히 위기나 재난이 닥쳤을 때 국가의 대응 역량과 능력에 따라 사회통합도는 상이한 양상을 띠는 점에서(Gisselquist & Vaccaro, 2021), 체계적인 방역 거버넌스와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반한 높은 방역 순응도는 사회응집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위기 국면에서 결집 효과(rally around the flag effect)로 높아졌던 응집력과 신뢰도는 그러한 이벤트가 사라지거나 국면이 전환될 때 다시 원상복구되는 경향이 있으며(Nielsen & Lindvall, 2021), 재난이 장기화되거나 종식되더라도 '개별화된 영향'이 더 오래 지속된다면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사회 전체 수준에서의 국가 자부심, 통합 인식, 사회적 신뢰도는 코로나19 이후 크게 상승한 것과 대조적으로 개인 수준의 행복감, 삶의 만족도, 우울감은 악화되었으며, 대인 신뢰도와 사회자본 역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낮아진 점이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함.
 - 특히 코로나19의 피해가 컸던 자영자, 중하층, 40~50대 남성, 20~30대 여성 등 특정 집단에서 삶의 만족도 하락 폭과 우울감 상승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삶의 만족도와 사회응집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적 개입이 요구됨.

- 무엇보다도 재난의 피해 집단이 최대한 피해 이전의 상황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금전적·물리적·사회심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함.
-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신뢰도와 사회자본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대인 신뢰도, 결사체 소속도, 사회단체 참여율, 소수자 포용성, 사회적 고립도 등 사회자본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이었음(박준 외, 2018), 지나친 경쟁,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 만연으로 인해 모래알처럼 고립된 개인들을 ‘느슨한 연대’를 통해 새롭게 묶어 낼 수 있는 사회·문화적 대안 네트워크를 구상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불확실한 세상’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 시민 교육을 통해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 교육을 체계화할 필요도 있음.

〈참고문헌〉

박준, 김석호, 장수찬, 채종현, 김성근, ...이두희. (2018). 한국의 사회적 자본: 현황과 확충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여유진, 우선희, 곽윤경, 김지원, 강상경. (2021).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II):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Gisselquist, R. M., & Vaccaro, A. (2021). COVID 19 and the state. WIDER Working Paper 2021/80, United Nations University. <https://doi.org/10.35188/UNU-WIDER/2021/018-4>, 2021. 10. 4. 인출.

Nielsen, J. H., & Lindvall, J. (2021) Trust in government in Sweden and Denmark during the COVID-19 epidemic, West European Politics, 44:5-6, 1180-1204. <https://doi.org/10.1080/01402382.2021.1909964>, 2021. 10. 4. 인출.

〈연도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집필: 여유진 (복지국가연구단 선임연구위원) 문의: 044-287-8181